

본회, 한국형 종돈 선발지수식 새로 마련

-정부 승인받는데로 시행 방침

본회는 종돈능력검정소 개소 당시(83. 9)부터 사용하고 있는 종돈 선발지수식이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양돈업계 여론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근접한 새로운 한국형 종돈 선발지수식을 마련, 정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본회 부설 공인 종돈능력검정소는 지난 6월 4일 검정위원회(위원장: 박영일)를 열고 88년 7월부터 검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온 한국형 종돈 선발지수식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축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에 이를 상정·심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얻는데로 검정소검정과 농장검정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본회 검정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검정소검정 선발지수식 $I = 250 + 101ADG - 34.5FE - 31.3BF$ 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발지수식 $I = 250 + 110ADG - 50FE - 19.685BF$ 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 마련한 검정소검정 설발지수식은 일당증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의 지수식보다 등지방두께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사료요구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등지방두께 비중 대폭 강화

즉 기존의 검정소검정 선발지수식은 일당증체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사료요구율 45, 등지방두께 18의 비율이었으나 새로 마련한 선발지수식은 일당증체량 100, 사료요구율 34, 등지방두께 31의 비율로 인해 등지방두께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 것이다.

농장검정 선발지수엔 90kg도달일령 빼고 일당증체량 추가

또한 검정위원회는 농장검정 선발지수식도 $I = 100 - 17.68(A - \bar{A}) / SD_A - 17.68(BF - \bar{BF}) / SD_B$ 에서 $I = 100 + 159(ADG - \bar{ADG}) - 45.2(BF - \bar{BF})$ 로 새로 마련했다. 즉 기존의 농장검정 선발지수식을 구성하던 등지방두께와 90kg도달일령중에서 90kg도달일령을 빼고, 대신 일당증체량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와같이 한 이유는 90kg도달일령의 경우 농장에서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체크할 방법이 없어 선발지수의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반면, 일당증체량의 경우 검정개시시와 검정종료때 정확히 체크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형질이기 때문이다. 일당증체량과 등지

〈표1〉 종돈 선발지수 공식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검정소검정	$I = 250 + 110ADG - 50FE - 19.685BF$	$I = 250 + 101ADG - 34.5FE - 31.3BF$
농장검정	$I = 100 - 17.68(A - \bar{A})/SD_A - 17.68(B - \bar{B})/SD_B$	$I = 100 + 159(ADG - \bar{ADG}) - 45.2(BF - \bar{BF})$

주) ADG : 일당증체량, \bar{ADG} : 돈군의 일당증체량 평균, FE : 사료요구율, BF : 등지방두께, \bar{BF} : 돈군의 등지방두께 평균, A : 90kg도달일령, \bar{A} : 돈군의 90kg도달일령 평균

〈표2〉 각 경제형질별 상대적 중요도

선발지수 공식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90kg도달일령	
검정소검정	현행	100	45	18	-
	개정(안)	100	34	31	-
농장검정	현행	-	-	100	100
	개정(안)	100	-	28	-

방두께의 비율은 100 : 28의 비율로 계산토록 했다.

본회 검정위원회가 이같이 검정소검정과 농장검정 선발지수식을 새로 마련한 이유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검정소검정 선발지수식의 경우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농장검정 선발지수식의 경우 캐나다에서 개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양돈업계의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검정소측은 밝혔다.

검정위, 2년간 선발지수 개정 작업

한편 본회 검정위원회는 지난 88년 6월 최초로 선발지수 개정문제를 거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선발지수식을 만들기로 결의한 바 있다. 검정위원회는 위원회내에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 종돈장 등 양돈업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각 유전형질의 경제가치와 유전모수를 근거로 이번에 새로운 선발지수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새 선발지수 확정 신중 에 신중 기해야 할 듯

종돈의 선발지수식은 종돈장에 장기적인 육종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선발지수식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시장여건과, 각 유전형질들의 경제적 중요도, 유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목표를 잘못 세워 일을 추진하게 되면 양돈농가 개개인의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돼지

선발지수식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시장여건과, 각 유전형질들의 경제적 중요도, 유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육종의 경우엔 육종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목표를 수정할 경우 바로잡는데 매우 오랜 기간이 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본회 검정위원회에서 그동안 2년여에 걸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새 선발지수식을 마련했겠지만, 가축재향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국내 여건에 가장 알맞는 선발지수식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돼지도체등급 기준안과 새 선발지수식이 상호 깊은 연관성이 있는가도 다시한번 살펴 보아야겠다.

새 선발지수식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동성**

〈취재 : 김동성〉